

잭 머레이, 느헤미야: 메시지 3

Daniel Berkowitz 작성, 2008년 Gordon College

성경 전도는 구원자를 높이고 듣는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고안된 Jack Murray 박사의 강해 설교를 다시 한 번 제시합니다. 여기 Jack Murray 박사가 있습니다:

복습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책에 대한 복습에 몇 분만 투자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아주 빨리 할 것이다. 오늘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나는 노인의 설교와 가르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그의 말을 자주 듣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수년 동안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맥스웰입니다. 많은 분들이 Three Hills Alberta에 있는 학교의 설립자이자 위대한 교장인 사람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작은 논문의 편집장일 뿐만 아니라 TS Rendell이라는 사람이 해당 논문의 캐나다 편집자이기도 합니다. 모든 직원을 위해 구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는 느헤미야에 관한 매우 귀중한 시리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처음 네 장을 검토하기 위해 그의 요약문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복습에서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의 위대한 법칙 중 하나는 복습, 복습, 복습입니다.

좋습니다. 4개의 챕터를 정말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점: "

필요성을 결정합니다." 1장 1-4절입니다. 느헤미야는 상황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환난과 치욕 속에 있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서 기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다음 첫 번째 장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5-11절입니다.

책의 두 번째 멋진 섹션인 "진실을 위한 용감함"과 "싸움에 나서는 용감함"부터 시작합니다. 3장에는 "참여하기"와 "사실을 직시하기"라는 주제가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그의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장의 17절과 18절에 " 다른 사람들을 모집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갈등의 두 번째 요소에 대한 그의 언어 표현은 "적을 저항하라"입니다. 3장은 '부하 분산'이다. 성벽 건축의 큰 그림과 4장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여러분에게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작은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자신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책의 첫 번째 부분인 "비전과 기도" 제1장을 여러분에게 주면서 개요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두 번째 구분은 2장부터 7장까지의 "진리를 위한 용감함"과 "싸움에 용감한"입니다. 우리가 다룬 처음 네 장인 "응답된 기도", "유능한 리더십"의 긍정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벽을 쌓는 것"과 "적을 견디는 것"이다.

갈등의 4가지 요소

또한 이 네 장에는 갈등의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2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고 사람이 오는 것을 저희가 심히 근심하니라" 2장 19절과 20절에 "그들이 충성된 일꾼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었으니"라고 했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모든 것은 다 옛날 자료입니다. "성벽 쌓는 것을 인하여 그들이 심히 분하여". 4장 7절과 8절에서는 "신체를 해하려 하는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지금 리뷰자료입니다. 우리는 이 장들의 사건들을 요약했고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진술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마음", "살펴보는 눈", "일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이 세 가지 진술의 실용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나라와 다른 나라들에 널리 퍼져 있는 나의 사역에서 나는 놀라울 정도로 기도 생활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

저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하는 일이 놀라울 정도로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설교자의 집에 가는데, 그 목사님과 그의 아내는 아주 드물게, 결코 두 사람만이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입니다. 나는 도저히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사랑하는 소녀는 내가 함께 기도하는 소녀이다 .

우리는 함께 엄청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족 기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모두 집에 있을 때 저녁 식사 후에 그것을 먹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디저트를 위해 기도를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좋아한다.

지켜보는 눈

그다음 2위는 '보는 눈'이다. 악마가 당신을 걸러 넘어지게 한 곳에서 당신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정찰하고 준비하십시오. “너희가 당한 시험은 없으나 오직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니라 하나님은 미쁘사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탈출 방법을 배우십시오. 악마가 어디에서 활동하는지 알아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생각 생활에 있든, 말에 있든, 행동에 있든,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시계를 보는 눈."

계속 짓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결코 “하나님을 위한 건축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악마가 당신이 흠손을 놓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마십시오.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건설하고, 한 줌의 트랙을 손에 쥐고,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작업을 완료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일할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5장 소개: 외부/내부

좋아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자료인 5장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약간의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은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마지막 세 장에서 우리는 외부의 반대인 산발랏,
도비야 게셈을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아소디 족속, 사마리아 족속,
아라비아 족속, 아몬 족속, 하나님의 대적들이 증가하였느니라. 어제
우리는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수직의 큰 외침으로 마무리했고
느헤미야의 큰 승리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은 내부
작업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외부의 적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벽 외부를 상대하지 않고 벽 내부를 상대합니다. 오늘 아침 이 장을 읽고
있는 이유는

새로운 미국 표준 역본보다 조금 더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장의 처음 몇 구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백성들과 그들의 아내들이 그들의 형제들(형제들이라는 말을 기억하라)을 원망하여 크게 부르짖으니 우리와 우리 아들딸들이 많으니 곡식을 얻자 하는 자들이 있었음이라 어떤 사람은 우리가 먹고 살기를 원하며 어떤 사람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우리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잡아 곡식을 얻으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식량을 빌렸노라 하고

우리 밭과 포도원에 대한 왕의 세금이 이제 우리 육체가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가 그들의 자녀와 같으니이다. 그러나 보라 우리가 우리 자녀를 종 으로 삼아 종을 삼고 있는데 우리 딸 중에 이미 종을 삼았으니 우리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임으로 우리가 힘이 없도다”(느 5:1-5).

지금 이것은 신자들의 그룹 내부에 있는 많은 상황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형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경우에는 가진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용할 수 있고 빌려줄 수 있고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점차적으로 자기 형제들을 속박할 수 있는 돈이 있는 어떤 사람들의 철학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얻고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이 느헤미야가 알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당신도 알다시피, 위대한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대한 일에 너무 열중하여 놓칠 수도 있고 심지어 그 밑에

매우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20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영혼의 원수들이 외부에서 올 뿐 아니라, 게걸스러운 이리들이 양 떼를 멸하려고 들어올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같은 일을 하려고 안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내부적으로 끔찍한 상황을 초래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느헤미야와 그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그 부르짖음과 이 말을 듣고 심히 노하여

이 말을 계속하고 스스로 의논하고 ”(느 5:7). 화가 났을 때 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정의로운 분노라고 부를 것입니다.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런 공동의 대의로 신자 대신자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발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큰 바나바와 같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초반부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므로 하나님의 것을 후히 드렸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이로 인해 아무 사람도 필요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버뮤다용 플러그를 좀 꽂아도 될까요? 아시다시피, 저는 버뮤다의 많은 가정에 가봤고 축복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옆집에 곤경에 처해 있거나 누군가가 가족에게 곤경에 처해 있고 병이 있을 때 그들은 도와줄 수 있는지 묻지 않고 당신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버뮤다인들이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있어요. 그들은 단지 들어가서 도와줍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돌봅니다. 미국에서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신자 대 신자인 것은 너무 나쁘지 않은가? 그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 꽤 문제인데? 이것은 외부의 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깔개 밑으로 쓸어버리자구요? 예를 들어, 그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며칠만 자자면 사라질 거예요. 죄는 암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죄는 양성이 아니라 악성이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것은 죄가 더 많이

통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내일은 같지 않을 것이며 조금 더 강렬해질 것입니다.

상황 처리: 6마디

 느헤미야(이것은 그의 위대한 리더십의 또 다른 특징)가 상황을 보자마자 그것을 만났습니다. 먼저 그는 자기 자신과 약간의 사적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올바른 목적에서라도 윗몸을 날리는 것은 꽤 위험합니다. "나 자신과 상의했어요." 나는 앉아서 무엇을 할지 결정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여섯 단어를 어떻게 알려드릴까요?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어긋나고 몸의 공동 이익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설명을 한 뒤 그것이 무엇인지 "폭로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가 추방했다." 그것이 그가 하는 일입니다. 이제 세 단어만 더 가져가서 똑같은 말을 하기 위해 "공개했어요"라고 포장을 벗었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곳에 공개적으로 꺼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것이 틀렸다면 "책망"하십시오. 그리고는 "파멸된 것을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부흥 장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만일 느헤미야가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면 느헤미야를 연구하는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전혀 가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이 문제에 직면해야 했다. 지금 충족되지 않았다면 다음 장에서 승리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므로 그는 그것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는 귀족들과 다투고 있었고 통치자들과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만 그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장에서는 세 줄의 논증이 있습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 형제에게 이자와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반대하여 큰 대회를 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의 능력대로 이방인에게 팔린 우리 유대인 형제들을 구속하였다고 말하였노라. 이제 당신은 당신의 형제들을

우리에게 팔 수 있도록 팔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잠잠하여 아무 말도
얻지 못하더라”(눅 5:7-8).

엄청난 주장이군요. 오늘 아침에 당신이 신자라면 당신은 같은 몸, 즉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며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의 모든
부분이 신체의 다른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 자신의 일이고 잘못된 일을 하는 이 영역에서 다른 누구의 일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뇨,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같은 몸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환상적인 주장이지 않나요?

두 번째는 "내가 말하기를 내 형제와 종들도 곡식을 꾸어주었으니 이 이자를 탕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9절. "너희의 소행이 좋지 아니하니 우리 대적 이방인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 5:9) 간증과 관련하여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다윗이 큰 죄를 지은 후에 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너희가 이방인과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모독할 기회를 주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는 당신도 그것을 건네주기만 하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와 거래를 했는데 누군가가 돌아와서 그렇다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 교회에 있는 이 사람과 당신 교회에 있는 저 사람을 알고 있으며, 그들에 관해 지옥처럼 썩어빠진 일과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신은 어떤 대답을 갖고 있나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것이 그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원수들이 진영 내의 불일치와 죄를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떠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끔찍한 비극입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당신은 지금 하는 일로 이 몸의 증거를 파괴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장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주장은 다소 자명합니다. 그들이 이 일을 하는 동안에는 성벽 건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른쪽?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삭 중지. 토비아 때문이 아닙니다. 산발랏 때문이 아닙니다. 원수 때문이 아니라 신자 때문입니다. 외부적인 영혼의 어떤 원수도 결코 하나님의 사업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신의 삶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 신자는 그 죄를 멈출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진리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부흥의 진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얻은 사람은 느헤미야라는 주제로 시작하셨습니다. 부흥을 위해서는 비용이 듭니다. 부흥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시점에서 그냥 등을 돌리고 어떻게든 괜찮을 것이고, 아니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 이제 그의 말을 살펴보자. “그들의 밭이요, 포도원이요, 감람원이요, 집이요, 또 너희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함께 은백을 오늘 그들에게 돌려 주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그것을 돌려받을 것이며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말한 대로 정확하게 할 것입니다 ! 그래서 나는 제사장을 불러서 이 약속대로 행하겠다고 그들에게 맹세하게 하고 내 옷자락을 털며 '이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 집과 소유에서 쫓아내실지라 하였노라 이 약속도 이렇게 되면 반드시 흔들려 없어져 버리리라'(느 5:9-13)

그는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리고 회중은 모두 아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으로 돌아갔나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백성은 이 약속대로 했습니다. 그는 문제를 만났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자서전

하지만 그가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여기에 약간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대한 훌륭한 연구 중 하나가 바울 자서전의 세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빌립보서에서 바울에 대해 많은 친밀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빌립보서 대신에 자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자신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매우 재미있는 구절이므로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날부터 아닥사스다 왕 제이 ^{십년} 부터 제삼십 ^이 년까지." (느헤미야 5:14) 어제 강의를 끝난 후 어떤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서 "12년을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거기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것이 확인입니다. 12년. "나도 내 친척도 도사님의 식량을 먹지 않았습니다." 즉, 나는 유지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었지만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날 소위 말하는 1년에 1달러를 받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들에게서 은 사십 세겔 외에 떡과 포도주를 빼앗았으며 그들의 종들도 백성을 학대하였거니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훌륭한 모범을 기록했습니다. 당신이 지도자가 되려면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같은 일을 했다면 여기서는 슬픈 일이었겠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나도 그 일에 힘썼습니다. 이 벽. 우리는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종들은 다 함께 모여 역사를 하였느니라.”(느 5:16).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손을 더럽혔습니다. 내가 이 성벽을 쌓았지만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사람들에게 방문하러 나가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설교하는 것을 실천합니다.

그뿐 아니라 나는 사욕을 품지 않았고, 돈을 벌어서 재산을 늘리는 일도 하지 않았으며, 내 집안의 모든 종들에게 명령했는데 그 사람의 수행원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이 벽을 쌓을 예정이에요. “또 내 식탁에는 유대인과 관리들 150명이 있었고 그 외에 우리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5:17) 아, 매일 먹여살리기에 꽤 많은 양이군요? 그의 테이블에는 150명이 넘는다. 지금의 식량 가격으로 150명에게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글쎄, 그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제공했는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가요? “날마다 소 한 마리와 좋은 양 여섯 마리가 준비되었으며 또 새들도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으며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가 넉넉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총독에게 양식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노역이 쉽기 때문임이라” 이 백성에게 무거운 짐이 있느니라”(느헤미야 5:18) 이제 이것이 느헤미야가 어딘가에 약간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다는 사실에 대한 나의 주장입니다.

나랑 논쟁할 건가요? 아니요, 내 생각에 그는 상당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간뿐만 아니라 그의 재능과 빛나는 재능뿐만 아니라 그의 보물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간다. 시간. 재능. 보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처분에 달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상황을 마무리하기 위해 짧은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선한 일을 기억하옵소서”(느 5:19) 얼마나 훌륭한 리더십이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전투의 핵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한 다음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6장을 펴세요. 6장에서 우리는 오늘 아주 아주 흥미로운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 몇 명을 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서 6장은 여러분에게 성경을 펼치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 이 6장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다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6장의 첫 구절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제 내가 성벽을 건축하고 그 안에 무너진 곳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함을 산발랏이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우리의 남은 대적에게 고하니라. 문과 대문을 세우지 말라.) 이제 벽이 실질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건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어 오노 평지 한 마을에서 함께 만나자 하매 그들이 나를 해하고 해하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 6:1-3).

에큐메니칼 운동의 희생자

이제 잠시 올려다 보세요. 같은 군중이라는 뜻인가요? 이 사람들이 심히 슬퍼한 사람들이냐? 웃고 비웃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 화가 났나요, 화를 냈나요? "너희가 계속 그 벽을 쌓으면 우리는 칼을 들고 너희와 싸울 것이다"라고 말한 사람들인가. 이제 그들은 다정하고 사랑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것은 마귀의 또 다른 교활한 접근 방식입니다. 많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영혼의 모든 원수를 물리쳤습니다... 당신은 안전벨트를 매고 있습니까? ... 그리고 에큐메니칼 운동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사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갑자기 “앗자. 서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확실히 우리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친교는 진리보다 더 중요합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이들은 똑같은 영혼의 원수들이지만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빛의 천사들, 심지어 강단에서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양으로 가장하지만 항상, 게걸스러운 늑대들.

느헤미야는 그들이 악한 일을 꾀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이 히브리어 본문은 약간 모호합니다. 그것은 그를 노동자들로부터 분리시키려는 낡은 전략, 즉 분열과 정복을 의미했을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이 군중에게서 떼어낼 수만 있다면 아마도 그 일을 중단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아니면 더 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해악을 행하다, 악을 행하다라는 말은 살인을 행하는 데까지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사람들에게서 떼어낸 다음 제거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노 평원의 한 마을에서 만나자 느헤미야는 “아, 안돼”라고 말했습니다. 안 돼.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다음 구절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하니”라고 말하므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버리고 당신에게로 가는 동안 왜 일이 멈춰야 합니까?” (느헤미야 6:3)

이제 당신은 그것이 약간, 약간의 찌르는 소리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최고의 직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장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에큐메니컬 컨퍼런스를 위해 왜 흠손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내가 왜 당신과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까? 그리고 작업이 중단됩니다.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중 일부는 마음이 붉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Abraham Kuyp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헤어져야 해." 하지만 그는 또 다른 말을 했습니다.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로 합쳐져야 합니다.” 같은 진리로 함께 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하나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에큐메니칼이다. 당신은 "그 단어가 뭐죠?"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대화, 그렇습니다. 신자와 신자, 오, 우리는 위대한 본질에 함께 서 있습니다! 성경의 언어적이고 보다 분명한 영감. 동정녀 탄생, 대속,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기적의 진실성, 믿음의 진실성! 아, 우리는 교회 정부의 질서에 관해 그것이 독립이든 노회이든 주교이든 간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질서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서비스는 저보다 조금 더 격식을 차릴 수도 있고, 제가 귀하보다 조금 더 격식을 차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너무 형식적이어서 일요일 아침에 떠나고, 너무 비공식적이어서 일요일 밤에 떠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역 단체인 우리를 구분하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진리에 관해 우리를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에큐메니시티. 나는 이러한 다른 것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성경의 위대한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믿음은 함께 속하고 불신은 다른 곳에 속합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갈등의 여섯 번째 요소: 거짓말

좋아,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갈등의 여섯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글썄요,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죠? “그들이 네 번이나 이런 식으로 나에게 사자를 보냈는데 나도 똑같이 대답했다”고 그들은 지쳤습니다. “그때에 산발랏은 다섯 번째에도 그 종의 손에 공개 편지를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나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이 공개 서한의

내용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방인 중에 소문이 들리는데 가스무 곧 게셈이 이르기를 너와 유대인이 모반을 꾀한다 하나니 그러므로 네가 성을 건축하는도다 이 소문대로 네가 그들의 왕이 될 것이요 또 선지자들을 세우셨도다 유대에 왕이 있으니 이제 이 일이 왕께 보고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함께 의논하자 하매 (느헤미야 6:5-7)

허위 신고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거짓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당신에게 숨은 동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죠 ?

사람들이 어떻게 동기를 말할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이 왜 그랬는지 아시죠?”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까? 그들은 항상 교활한 숨은 동기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여, 당신은 평신도와 총독으로 자처했습니다. 당신은 이 도시를 재건하는 데 Art axerxes 밑에서 활동했지만 항상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물이 되고 싶어합니다. 당신은 왕이 되기를 원하고, 세뇌된 선지자들을 갖고 있고, 그들을 모두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완성되자마자 한마음으로 외칠 것입니다. “유다에 느헤미야 왕이 있으니 너희가 아닥사스다를 대항하여 반역하리라. 썩은 거짓말을 바꾸십시오.

거짓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어느 날 편지를 받았는데, 그것을 보고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 총장이었고, 큰 교회의 성공한 목사였습니다. 저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것을 변호사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았다. 그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는 “50,000달러를 원하시나요? 나는 “John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항상 50,000달러를 원해요! 아니요, 그는 “그 편지는 너무나 비방적이고 오류가 있어서 법정에 가져가면 50,000달러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비웃으며 “나는 그런 식으로 50,000달러를 원하지 않아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편지는 잘렸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절대 거짓말! 이것은 절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오오오오오 누군가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군요. 결국 내려가서 그 사람과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산헤드린과 함께 앓는 것이 좋겠다....아니요, 사마리아인들이여. 나는 이 사역 협회와 함께 앓아 있는 것이 좋겠다. 아니, 사마리아인을 말하는 것이다. 차라리 가서 내가 진짜 누구인지 스스로 선언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모두가 내 순수한 동기를 알아야 합니다."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의 마음.” (느헤미야 6:8) 이제 그것은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꾸며낸 대답입니다. 그렇습니다..

글쎄, 이 적은 버텼습니다. 상황이 좀 심각해지고 있지 않나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조금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가 5장 끝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지금 다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모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낙담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것, 낙담시키는 것, 벽 쌓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 느헤미야의 짧은 기도 중 하나가 다시 "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소서!" 이때쯤에는 상처가 좀 보였다고 하는데 바울은 "내 몸을 주 예수의 흔적에 장사하였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는 갈등의 피와 땀과 눈물 속에서 있습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

일곱 번째 갈등 요소: 성공

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 때 우리 마음은 조금 슬퍼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갈등 요소는 '성공'이다. 무엇? 네,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 그것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언급하고 금요일 아침에 그것을 가져가겠습니다. "내가 집에 갇힌 므헤다벨의 손자들릴라의 아들 스마야의 집에 들어가서 이르되 우리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모이자 성전 문을 닫자. 그들은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고 밤에도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이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스마야가 있습니다. 스마야는 산발랏도

아니고, 도비야도 아니고, 그 밖에 있는 누구도 아닙니다. 그는 형제 중 한 명입니다. 내부자 중 한 명입니다. 느헤미야에 대한 정보를 좀 얻었나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죽이기로 약속한 그룹입니다. 어느 날 밤,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안전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평신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원의 신성한 경내로 들어갈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것이 옳지 않더라도 평신도로서 사원의 내부로 피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그리고 당신의 가족을 보관하세요." 이제 그가 토비아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다면 아마 아무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내부적으로 동조하는 입장에 이르렀습니다. 도비야와 산발랏을 동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붙잡을 것입니다. 불신앙에 대한 동정심의 죄. 불신앙에 대한 동정심의 죄. 스마야도 그중 하나입니다.

자, 우리 영웅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 사람은 뭘 했는데요, 사원으로 가나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합니까?”라는 말이 마음에 듭니다. 내가 무엇으로부터 도망쳐야 합니까? “또 나 같은 사람이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겠노라 그제서야 깨달은즉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요 도비야와 산발랏이 내게 예언하였음이니라”? 이봐, 여기 선지자인 사람이 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가쉬무스”가 도처에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 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대답은, 그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은 영원하고 말로 영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다. ^{20세기} 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더하시지 도, 모순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는 예언을 했습니다! 마귀에게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악마에게는 치료사가 있습니다. 모든 치유는 신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옳을 병들게 허락하셨다면, 아마도 사탄도 그를 낮게 하도록 허락했을 것입니다. 다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모든 치유가 신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육체적인 치유가 결코 사람에게 가져올 수 없는 더 깊고 깊은 비극으로 가는 문인 악마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느헤미야 곁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힘든 일이지만 우리 주님도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식탁에는 유다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다섯 번째 열을 가졌습니다. 그는 바로 내부에 적의 교두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책의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그 점을 조금 더 확대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를 고용한 것은 나로 두려워하여 죄를 따라 행하게 하고 그로 악한 평판을 얻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느헤미야 6:13) 느헤미야가 그 성전으로 달려갔을 때 다음 날 성 전체에 아무도 오지 않고 “너희에게 어떤 지도자가 있느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는 달렸지만 그를 쫓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가족이 무서워서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나요?

그가 성전의 가장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악평을 받았지만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악평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지켜보아야 해요!

이제 그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여, 도비야와
산발랏이 그들의 이 말대로 기억하고 여선지자 노아야를 기억하소서.”
무엇? 여자도 이것에 참여하게 하세요! 반대쪽에 줄을 선 여선지자,
여자선지자가 있다! "그리고 나를 놀라게 하려던 나머지 선지자들도..."
(느헤미야 6:14) 이 반대에 많은 교직자들이 연루되었습니다. 나는
바하마의 느헤미야에서 매일 한 번씩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
설교자 중 한 사람이 나보다 한 시간 뒤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바코에 섬에 사는 이 사랑하는 형제는 일주일 내내 내 말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여선지자 노아야의 이 구절에 이르렀을
때 나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시간에 왔고 그는 일어나서 “주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쨌든 여자 없이는 주변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 어딘가에 이세벨이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가 집에서 여자 문제를 겪고 있거나 교회에서 여자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그는 느헤미야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녀는 거기 있어요. 그녀는 거기 있어요.

회색 내부와 싸우기

좋습니다. 잠시 저와 함께 17절부터 19절까지 살펴봅시다. 이는

동일한 진리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에 유다 귀족들이 도비아에게 많은 편지를 보냈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 귀족들 중에 몇 사람은 팔리더라.) 이는 그가 아들이므로 그에게 맹세하는 자가 많았음이라”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율법과 그의 아들 요하난이 베레가의 아들 므술람의 딸들과 결혼하였더라 믿음과 불신앙의 통혼이 있었는데 이는 절대적으로 금지된 것이었다. “그들이 내 앞에서 그의 선행을 말하고 내 말을 그에게 알리고 있을 때에 토비아가 나를 놀라게 하려고 편지를 보냈느니라.”

이제 느헤미야는 손에 뭘가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벽 밖에서 흑인과 싸우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내부의 회색과 싸우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이제 이것은 금요일 오전 강의에 있어서 아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내일 강의를 할 예정이지만 내일 우리는 부흥,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자 합니다. 이제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오십이 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성벽 공사가 끝났느니라.”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반응이 어떠했는지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인이 이를 듣고 담대함을 잃었나니 이는 이 일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줄 앎이니라”(느헤미야 6:15-16)) 좋지 않나요? 좋지 않나요? 그리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인클로저가 완료되었지만 귀하가 설정한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장에는 인구 조사에 관한 중요한 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느헤미야와 함께 있던 5만명의 이름이 모두 언급되어 있으며, 책임 있는 직책을 맡은 느헤미야의 형제와 책임 있는 직책을 맡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8장 1절부터 우리는 성경 전체의 가장 위대한 장면 중 하나인 부흥의 장면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요약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렌델 선생님의 말씀으로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5장: 1-13. 분쟁에 대처하고, 무시하지 말고, 축소하지 말고, 만나고, 해결하십시오. 그런 다음 개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십시오. 예시를 설정하세요. 14절부터 19절까지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했듯이 울무, 비성경적인 협력의 울무를 조심하십시오.

적의 거짓말에 대한 과잉 반응의 울무입니다. 내부의 지나친 동조자들의

울무. 그리고 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일을 끝내고 일을 완수하고

마지막으로 7장은 권위를 위임하고 느헤미야서의 가장 위대한 일을

준비하는 것에 관한 위대한 장입니다.

나는 우리가 영적 각성의 참된 장면을 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부흥의 핵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부흥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선입견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일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부흥과 일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 조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부흥을
위해 마음으로 준비하여 내일 예배에 참석합니다.